metro

메트로 2014년 4월 25일 금요일 제296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김수현 단원고에 3억원 기부

다시 학교로 24일 오전 학교 정상화를 시작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단원고 정문에는 희망과 기적을 갈망하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여 만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통곡의 바다…국민은 분노한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 같아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9일째인 24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해지는 소조기가 이날로 끝남에 따라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에 문화재청 해저발굴단까지 투입해 막바지 수색 작업을 펼쳤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 팽목항은 단 한명의 생존자 소식 없이 사망자 소식만 이어지며 슬픔과 탄식이 교차했다. 가족들은 이제 시신이라도 찾기를 바라는 절망 속에 출입 눈물조차 메말랐다.

이날 사망자 중에는 특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권모(5)양의 어머니가 새벽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권양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히고 등을 떠밀어 권 양의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7시께는 가족과 함께 첫 제주도 여행에 나섰다가 홀로 구조된 조모(8)군의 어머니 시신이 수습됐다. 수색 3일째인 18일 조군의 형(11)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데 이어 이날 어머니도 사망자로 확인됐다. 조군의 아버지(45)는 아직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

또 사고 당시 최초신고한 단원고 학생의 시신도 발견됐다.

사망자 소식만 이어지자 가족대책상황실에서는 한 여성이 "한날 봐야만 가면 뭐해 내 새끼 찾아와"라며 다 쉰 목소리로 통곡했다. 한 할아버지는 "지금도 수색중인 건가요" "언제 들어갔나요"라며 해경 관계자를 붙잡고 연거푸 대답없는 질문을 던졌다.

> "꽃다운 젊음이 가라앉는 걸 단 1명도 못구한 무능정부 한국호의 참담한 민낯 증명 사는 게 고통 이민가고 싶다"

이제 실종자 가족 사이에는 시신도 못찾는 것 아닐까하는 우려가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한 실종자 가족은 "살아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는 발견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장례라도 치러줄 수 있게…"라고 말했다.

발견된 사망자 수가 실종자 수를 넘어서면서 실종자 가족들도 지쳐갔다. 특히 정부와 이 나라에 불신을 표했다.

4남매 중 둘째가 실종된 한 아버지는 "모든 게 정리되면 이민을 가겠다.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2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도 방문 직후인 18일(금) 71%까지 상승했으나 이번 주 들어 67.0%(월), 61.1%(화), 56.5%(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부재에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듯 싶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개각 불가피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가며 점차 공론화될 조짐이다.

/김민준기자 mkm@metroseoul.co.kr

"한국 해상안전 부실 병폐"

캐나다 일간지 쓴소리 지적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한국 해운의 안전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사안이라고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이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과 함께 한국은 세계 해상운송 선박 건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조선 대국이다. 하지만 선박 업계의 해상안전 부실 문제는 그간 국제 사회에서 병폐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최대 스마트폰 생산국으로 첨단 산업의 오아시스'라는 명성을 쌓아 온 한국이 이번 참사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세계적 해운 전문 연구기관인 영국의 사우스햄턴 솔런트 대학은 54개국을 대상으로 해상안전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1997~2011년 사고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계선 처리된 사례의 등급을 매긴 결과, 한국은 3위로 비극적인 기록을 기록했다.

신문은 또한 미국 해안경비대가 안전 수칙을 자주 위반, 위험선박으로 분류한 '주의 리스트'에 한국이 수년간 올라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 주의 리스트에서 이름을 내렸지만 한국 선박의 사고 건수는 2008년 636건에서 2012년 941건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침통한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침통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원파 헌금 어디 쓰였나

사채까지 빌려 청해진해운 자금 활용 — 사업·종교 교묘히 결합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간 자금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교회 헌금과 신도들의 사채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이 소유한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한 종교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종교단체 회계자료와 헌금 명부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종교단체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한 관계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2만여 명에 이르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낸 헌금과 사채를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와 관계사들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 종교활동과 사업을 교묘히 결합시키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1987년 '오대양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심재륜 변호사는 사망자들이 조달한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 측으로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 가록이 발견됐다고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유 전 회장이 사실상 대표인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용대출 방식으로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4)씨가 최대주주인 주택 건설 분양업체 트라이곤코리아는 2011년 말 기준 281억원을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신용대출 방식으로 장기차입했다.

/정연우기자 ... @metroseoul.co.kr

고객은 뒷전인 KT 행태

기자 수첩

서승희 <경제산업부 기자>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하철 내 와이파이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면 SK텔레콤·KT의 네트워크 로그인 화면이 최대 3개까지 연거푸 팝업창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100%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데다 '곧 해결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KT고객센터에 문제를 설명했다. 상담원은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줬다. 담당직원은 전화번호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문제를 찾아냈다. 문제는 와이파이에 따른 설정값을 저장하는 곳과 전산망의 값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 원인을 알고 싶었다. 그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잦아드는 목소리로 답변했다. 보상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은 No. KT의 귀책 사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그간 받지 못했던 데다 수월이 지난 이 시점 고객이 전화를 걸기 전까지 문제 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실함에도 말이다. 물론 손쉬운 방법으로 무려 1년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었지만 이를 감지해 내지 못했던 KT지만 말이다.

대규모 명예 퇴직은 물론 들러싼 잡음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KT는 가장 근본은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황창규 회장이 고객 최우선 경영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바마 대통령 내한 오늘 정상회담

세월호 참사 애도·북핵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하면 양 정상 참석아래 간단한 공식 환영식이 있을 예정이며, 곧이어 1시간동안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적절한 문서를 채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1시간30분간 업무만찬도 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애도의 뜻을 표현할 계획이다.

주 수석은 또 "회담에서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및 최근 북핵실험 위협와 관련한 동향을 포함한 북핵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4번째로 역대 미국 대통령중 최다 방문이다. 방한시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수강태황제보' 등 9개의 인장도 반환한다. /김민준기자

미·일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도쿄 도내 모토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양국 유국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들 위한 해상 안전교육 세월호 침몰로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24일 서울 서대구 개운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복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자 DNA 24시간 내 처리"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DNA 검사 결과를 2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4일 오전 "DNA 검사를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 헬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성지원까지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사망자 이송을 위해 군 헬기, 구급차, 민간업체 운구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제공하고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들에게도 헬기, 자동차 등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 인도 과정에서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지문, 병원기록, 법의치학 정보 등에 따라 사망자를 가족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한국선급 임원 비리 포착 압수수색

부산지검이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에 전 임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24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해운업계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선박안전 이산와 집행내역 등을 확보하고 선박검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금품을 받고 해운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박 검사가 이뤄졌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검찰은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고 임원들도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많아 해운업계와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용기자

유병언 일가 자택 200억대

서초구 염곡동 6필지 … 영농조합 차명 관리 의혹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영농조합 명의로 돌려놓고 차명으로 관리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 전 회장의 동생 명의로 돼 있던 5729㎡ 넓이의 6필지를 모 영농조합법인이 사들였다.

이들 토지는 모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등이 소유한 단독주택 4채 인근이고 일부 땅에는 일가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들 토지의 시가를 ㎡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으로 보고 있다. 전체 시가는 2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유 전 회장의 동생은 1998년 11월 이들 토지 대부분을 매입했다. 당시는 세모그룹의 모기업인 (주)세모가 부도를 맞고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던 시기다. 동생은 이들 땅을 담보로 청해진해운의 계열사인 트라이곤코리아와 돈거래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들 땅을 사들인 영농조합법인은 경기 안성시 보개면에 종교시설 '금수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금수원은 유 전 회장이 세운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으로 사실상 유 전 회장 일가의 사저라는 의심을 받는 곳이다.

이 영농조합은 2003년 '협업적 농업경영', '농·축·임산물의 공동 생산 및 공동출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인근에서는 이들 땅의 실제 주인이 과거에도 동생이 아닌 유 전 회장 본인이었다는 얘기가 나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염곡동 땅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영농조합 명의로 대규모 부동산을 숨겨놓고 차명으로 관리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양식김 안심하고 드세요"

시 수산자원연구소 중금속 농약 검사… 식품기준 적합

부산시수산자원연구소(소장 이상윤 이하 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부산지역의 양식김 13건을 수거해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도와 델타메쓰린 등 6가지 성분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식품기준에 적합하다고 24일 밝혔다.

김에 대한 식품 기준·규격은 카드뮴(0.3mg/kg)만 설정돼 있다.

그 외 성분은 어류의 기준·규격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성분도 모두 식품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김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사용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주민 청구로 학교 비정규직 채용 조례 발의

부산지역 초·중·고에서 일하는 8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안정된 고용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주민청구로 이들의 채용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일원화하고 근무조건의 통일, 임금개선 등 근로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선)는 주민청구조례안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기간제원, 단시간 근로자인 교육실무직원(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장들이 쥐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교육감으로 일원화 된다. 교육감은 또 이들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채용,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동안 학교마다 근무조건이 달라 저임금은 물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해왔다.

이 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근무시간, 임금 등이 통합돼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발의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청구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부산시 조례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 이상(2012년 말 기준 3만4천200여명)이 청구서에 연서하도록 돼 있다.

학교비정규직 부산시지부는 비롯해 시민단체,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등은 지난해 조부터 조례발의 서명운동에 나서 6개월여 만에 4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올해 1월 조례를 발의했다. /연합뉴스

지역 신설법인 소폭 증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 부산지역 신설법인이 소폭 증가했다.

24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365개로 지난해 같은 달의 355개보다 2.8% 증가했고 지난달의 345개에 비해서는 5.8%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스업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증가한 88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세제혜택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주택시장 신규물량 공급 등에 따른 분양시장 호조로 부동산 분양대행·임대·중개업 등 관련 신설법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79개가 새로 생겨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늘었다.

제조업 가운데는 기계, 금속, 철강,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의 법인 신설이 증가됐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이 67.9%로 가장 많았고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이 14.2%, 2억원에서 3억원 미만 9% 등의 순이다.

부산우정청 선관위와 업무협약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이병철 왼쪽)은 지난 23일 오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6.4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천사업 '현미경 조사'

부산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추진실태 점검… 애로사항 청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상남·북도 등 영남지역 주요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사업추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부산국토청이 직접 시행하는 국가하천정비사업(양산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25건(사업비 1250억원)과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령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144건(사업비 2451억원) 중 규모가 큰 사업을 선정해 이뤄진다.

부산국토청은 대상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현황과 국고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해당 시·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집행부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지방비 확보여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여부 등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진행과 관련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조금 집행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박성출 하천계획과장은 "영남지역 하천 정비사업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하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울산도 AI 24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농가에서 최근 5일간 닭 70마리가 폐사해 부검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소견이 나와 방역당국이 잠정 농장 출입로를 막고 있다. 이 농장은 토종닭 7000여마리와 오리 13마리, 칠면조 6마리, 거위 3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긴급로 살처분 조치키로 했다. /뉴시스

'이바구길' 명칭 함부로 사용 못한다

동구, 상표 등록 완료

부산 동구는 이바구길 상표가 지난 15일 특허청에 등록 완료됨에 따라 명칭과 상표, 표장에 대한 독점 권리를 동구가 갖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부산역과 산복도로를 잇는 도로와 골목에 있는 주미지고 못 쓰는 폐공가와 공터를 활용해 이바구공작소와 김민부전망대, 유치환우체통, 장기려박사 기념 더 나눔 센터, 까꼬막 등을 세우고 이바구 길을 만들었다.

이후 1년간 관람객은 10만 2181명으로, 이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4207만원. 이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공공근로 인력은 19명으로 일자리 창출로 1억8400여만원의 파급효과도 발생했다. /정하균기자

시 '메디컬 아시아 의료관광 선도 대상' 수상

부산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4 메디컬 아시아 의료관광 선도 대상'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시와 함께 대상을 받았다.

메디컬 아시아 2014는 한·중 언론 3사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지자단체와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한 병·의원을 발굴·육성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전 기초조사, 전문가 조사, 온라인 조사, 병원 모니터링, 직간접 암행조사, 공동 자문위원 인증을 거쳐 메디컬 아시아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의료관광 활성화" 시책으로 △5개 국어로 된 부산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 △부산 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다.

또 KBS World TV(73개국 5천만 가구 송출)와 부산 의료관광 유튜브 제작 홍보,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배포 등으로 부산 의료관광 홍보는 물론 외국인들이 부산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료관광 마케팅을 위해 △의료관광 홍보단 해외파견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국제행사 참여 외국인 건강검진 등의 사업 추진 △외국인환자 통역 지원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실무 매뉴얼 개발 지원 △의료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우호협정 체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됐다.

부산 남구 오륙도 근처 바위섬은 '나암' 근처에서 한 달에 두 번(음력 보름과 그믐) 바닷물이 빠지면 폭 10여m, 길이 100여m 규모의 길이 드러난다. 사진 왼쪽은 평소 모습이고 오른쪽은 지난 14일 '모세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촬영한 것이다. /남구 제공

부산판 '모세의 기적' 보러 오이소~

오륙도 인근 '나암'까지 한 달에 두번 바닷길 열려

부산 남구 오륙도 근처에서 '모세의 기적'처럼 한 달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장관이 연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오륙도 오른쪽 해안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나암'이라는 작고 평평한 바위섬이 있다.

평소에는 이 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차 있지만 음력 보름(15일)과 그믐(29~30일)에는 물이 빠지면서 폭 10여m 규모로 돌과 자갈로 이뤄진 길이 드러난다.

덕분에 인근 주민은 '모세의 기적'을 이용해 나암까지 걸어 들어가 소라와 톳 등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부터 시작됐다.

왕경운 부산 남구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반 근처 백운포에 방파제를 축조할 때 쓴 돌과 자갈 등이 조류를 따라 나암 근처로 밀려 와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 활성화 힘 보태주세요"

부산시민회관 '제3기 서포터즈' 내달 4일까지 모집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시민회관이 함께 합니다"

부산시민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을 더할 '제3기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민회관 서포터즈(BCS)'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멤버십을 구축함으로써 공공문예회관으로서의 오랜 역사와 전통성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민회관은 서포터즈에 위촉장과 홍보용 명함을 발급한다. ▲부산시민회관 문화사랑나눔회원(특별회원) 카드 우선 발급 ▲부산시민회관 주요 자체기획공연 연중 무료 관람(동반 1인) ▲월요영화감상회 '명작영화감상회' 연중 무료 관람(동반 1인) ▲공단 홍보물 기념품 사은품 제공 등 혜택으로 서포터즈들이 자부심과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연말에 우수활동자를 시상할 방침이다.

내달 4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15명 정도를 서포터즈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1년간) 부산시민회관의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 리뷰 ▲부산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문화사랑 나눔카드 홍보와 주요 자체기획공연 및 전시 자율관람 및 스토리텔링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서포터즈는 부산지역에 연고를 두고 문화예술과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시민이 대상이다. 또 ▲문화예술에 관심과 애정이 많고 글쓰기·사진촬영·동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 ▲트위터·페이스북·싸이월드, 개인 블로그 등에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 ▲시민회관 주요 자체공연·전시회 개최 시 참석이 가능한 사람(주부 서포터즈 가능)을 우대한다.

신청은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http://citizenhall.bisco.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bestkck@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체 심사를 거쳐 5월 9일에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 발대식은 5월 14일 오후 7시에 할 예정이다.

부산시민회관 관계자는 "서포터즈제도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한 공간으로 다가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지리산 밤고구마 순 심기 한창 24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관정마을 농민이 오는 가을에 수확할 지리산 밤고구마 순 심기를 하고 있다. 고구마 재배에 알맞은 사질토인 신천 경호강변의 이 마을에서 생산된 밤고구마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인기가 많다. /연합뉴스

영도구 카네이션 만들기 봉사

부산 영도구는 내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직원들과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쁜 티 만들기 및 카네이션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쁜 티'는 관내 희망복지 사례관리대상 아동들과 장애아동시설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또 카네이션은 내달 영도구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열리는 '어르신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가슴에 꽂아드릴 예정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랑으로 만든 티와 카네이션이 아동들과 어르신들께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행복생활권 연구센터 설치

부산시는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 '행복생활권 연구센터'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8일 오전 11시 부산발전연구원 9층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이언오 부산발전연구원장, 부산발전연구원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연 계획이다.

센터는 사업기획 발굴팀을 구성해 부산·김해·양산·울주군으로 구성된 부산 중추도시생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센터 주요업무는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계협력사업 발굴과 공동사업 집행 지원 ▲생활권 관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 제반 사항 지원이다. 앞으로 생활권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운수사 대웅전 보물 지정 신청 '만지작'

천년고찰 운수사 대웅전이 해체 복원공사를 완료하고 낙성식을 연다.

운수사(주지 유경 스님)는 26일 오전 11시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 대한불교 조계종 운수사에서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낙성식은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이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면서 매우 경건하고 간소하게 진행된다.

2008년 9월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운수사 대웅전은 2011년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노후돼 해체 보수·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고 2012년 12월부터 해체·복원공사를 벌여왔다.

운수사 대웅전 모습 /운수사 제공

문화재청은 운수사 대웅전을 부산에서 유례가 드문 판은 잘 정제되고 뛰어난 기법의 목조건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선중기의 건축기법을 두루 갖추고 있는 특이한 건물로서 건축사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임진왜란 이전 목조건물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부산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1655년 중수)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지정문화재인 운수사 대웅전에 보물 지정 신청이 검토되고 있다. /정하균기자

어린이 공연 '알콩달콩' 개최

국립부산국악원(서인화 원장)은 내달 5일 오후 2시, 5시 연악당(대극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 '알콩달콩 우리친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람료는 전석 5000원이며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문의 051)811-0040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98.34 (-2.03)	561.12 (-4.35)	2.88 (변동없음)	1039.60 (변동없음)

현대차, 영업익 1조9384억

현대자동차는 24일 올해 1분기 실적이 △판매 122만7467대 △매출액 21조6490억원(자동차 17조7193억원, 금융 및 기타 3조9297억원) △영업이익 1조9384억원 △경상이익 2조6932억원 △당기순이익 2조281억원(비지배지분 포함) 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1분기 실적에 대해 "작년 말 출시한 신형 제네시스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내수 판매가 증가했고, 해외 판매도 증가해 작년 동기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4년 1분기(1~3월) 글로벌 시장에서 작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국내시장에서는 신형 제네시스의 판매 호조와 점진적인 시장 회복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대비 4.5% 증가한 16만675대를 판매했다. 또 해외시장에서도 총 106만6792대를 판매해 작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실적을 올렸고, 총 매출액은 작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21조6490억원을 기록했다.

/박상길기자 [illegible]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회·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영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제4호) 서울특별시 가00101

在中 한국기업, "중국경제 어렵다"

전경련 조사… 베트남 등 거점이전 검토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최근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내 생산·판매 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U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인건비가 높은 것이 원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45.6%로 나타났다. 또 '현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2년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도 42.4%에 달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응답 기업의 83.7%가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7.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고, 26.1%는 7%미만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85.8%가 7.5% 미만으로 응답했고 44.5%는 7%미만으로 예상해 올해보다 성장이 더 둔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

최근 부각되는 중국의 그림자금융 부실화 위험에 대해 응답 기업의 15.2%만 중국 경제에 위기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66.9%는 중국 경제에 주로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 35.9%는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림자 금융 부실화로 인한 위험을 인식하는 기업이 다수였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사업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전망이 밝다'고 응답한 기업은 22.2%, '어둡다'고 응답한 기업은 31.1%로 집계됐고, 46.7%는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경영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중국내 경쟁심화(44.4%)를 꼽았고, 인건비 상승(17.1%), 정부 규제(14.5%), 내수 부진(13.7%) 등도 제시됐다.

재중 한국기업 중 중국내 생산 및 판매거점을 다른 국가로 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13개사로 나타났다. 이전을 고려한 국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제시됐고, 한국으로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으로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국내 내수시장 협소(56.3%)와 높은 인건비(16.5%) 등을 지목했다. 해외 진출 기업이 한국으로의 U-턴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정부 지원제도로는 세제 지원(41.6%), 자금 지원(23.6%), 저렴한 부지 제공(11.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9.2%) 순으로 제시됐다.

/김태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국제선 여객수 역대 최고

올해 1분기 국제선 항공여객 수가 1325만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은 중국(17.4%), 유럽(10.0%), 동남아(6.4%), 미주(1.7%)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와 한류열풍, 소치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 노선은 방사능 피폭 우려, 한일 갈등 심화, 일부 노선의 공급력 축소 등으로 4.5% 감소했다. 대양주 노선도 0.8% 줄었다.

국제선 여객 분담률은 국적사가 65.1%로 조사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국적사가 53.0%를 차지했고, 저비용항공사는 12.1%를 기록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예쁜 보석 다 모였네!"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4 한국주얼리페어'가 열린 가운데 한 업체 관계자들이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꾸민 보석류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주얼리페어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T그룹on' 50만 다운로드 돌파 SK텔레콤은 3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앱 기반 다자간 통화서비스 'T그룹on'이 30~40대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어 5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美기술주 '어닝서프라이즈'

애플·페이스북, 분기 실적 호조에 주가 급등 아이폰 납품 국내 업체·국산SNS 수혜 기대감

최근 거품 논란에 주춤했던 미국 기술주 주가에 '어닝 서프라이즈'란 희소식이 찾아왔다. 애플과 페이스북의 분기 실적이 개선된 국면을 보여주면서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업체와 관련 업종들도 덩달아 수혜 기대감이 일었다.

23일(현지시간) 미 뉴욕증시에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페이스북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각각 7.7%, 3.4% 상승했다.

지난달 말로 끝난 애플의 자체 회계연도 2분기 주당순이익(EPS)은 11.6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0.18달러를 1달러 넘게 웃돌았다.

페이스북은 1분기 순이익이 주당 25센트로 전년 같은 기간의 주당 9센트의 3배에 육박한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좋아진 실적 외에도 애플과 페이스북은 주주정책이나 사업 방향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애플은 실적 발표와 함께 7대1 주식분할을 승인했다. 오는 6월 500달러가 넘는 애플 주식 1주가 7주로 쪼개지면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

분기 배당금은 주당 8.2달러로 전년보다 8% 늘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는 지난해 600억달러에서 900억달러로 확대한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애플은 미 경기호조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며 "이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표주자인 페이스북은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며 금융업 진출을 모색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아일랜드에서 e머니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유럽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자체 전자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는 사람끼리 e머니를 주고 받고 국외 송금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글의 '구글 월렛'에 이어 페이스북도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금융투자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애플과 트위터, 아마존 등 IT기업들의 정보력과 접근성이 금융 부문과 결합한다면 기존 자산운용업계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투자상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 기술주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살아나면서 국내 수혜 업종에도 관심이 쏠렸다.

애플이 올 하반기 내놓을 '아이폰6'이 전작과 같은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한다면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의 실적이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애플의 최대 LCD 패널 공급업체인 LG디스플레이, 아이폰6 백라이트 공급업체인 이라이콤, 맥북·애어와 아이패드에 구동회로칩을 공급하는 실리콘웍스 등이 수혜주로 꼽힌다.

국내 SNS 시장은 해외 굴지 IT업체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결제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산 SNS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모바일 지갑'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장벽을 적극 걷어내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엄격해 이 같은 흐름이 당장 활성화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신문지 하나면 나도 만능 살림꾼

짠순이 주부 경제학

신문지의 무한 변신은 무죄다! 신문지 하나로 주방·욕실 청소는 물론 집안 곳곳의 습기도 잡아주고 싱싱한 채소도 오래 보관해 준다. 여태까지 몰랐던 게 아쉬울 따름이다. 우선 과일과 채소를 보관할 때 유용하다. 보통 감자는 상온에 두면 싹이 나기 쉬운데 감자를 신문지에 말아 비닐에 넣어두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냉장고 안에 야채나 과일을 보관할 때도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보관하면 좋다. 그냥 보관하면 수분 증발로 금방 시드는데 신문지에 싸면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귤은 층마다 신문지를 깔아주면 무르지 않는다. 쪽갓은 물을 약간 뿌린 뒤 신문지에 싸서 채소칸에 넣고, 당근은 신문지로 감싸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보관한다.

기름을 제거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된다. 튀김요리를 할 때 여러 번 접어 주름이 만들어진 신문을 위에 올려주면 기름기도 빠지면서 기름이 다시 음식에 흡수되지 않는다. 프라이팬 기름기를 닦을 때는 신문지를 가볍게 뭉쳐 닦으면 키친타월보다 흡수력이 좋아 깔끔하게 닦을 수 있다. 기름기를 닦아낸 뒤에는 소주를 한번 정도 뿌려 닦아주고, 세제를 묻힌 스펀지로 씻으면 말끔해진다.

신문지를 이용해 군고구마도 만들 수 있다. 신문지에 물을 촉촉이 적셔준 뒤 고구마를 하나씩 돌돌 말아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단시간에 군고구마를 맛 볼 수 있다. 두부의 물기를 미리 빼고 싶다면 신문지를 두껍게 접고 요리용 종이를 몇 장 깐 후에 두부를 올려놓으면 두부의 물이 말끔하게 빠진다.

여행에 칼을 갈 때는 신문지 4~5장을 눌러 돌돌말아 테이프로 고정한 뒤 신문지의 가장자리 끝 원통 부분에 물을 묻히고 칼에 세제를 묻혀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칼날이 선다. /김문구기자

BMW 전기차 i3 공개

1회 충전으로 132km 주행

BMW가 전기차 i3(사진)를 2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i3는 신소재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으로 차체를 제작했고, 드라이브 모듈 역시 대부분 알루미늄을 적용했다. 덕분에 공차 중량은 1300kg에 불과하지만 64km/h 정면충돌에도 안전하고 고전압 배터리도 보호할 수 있다.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는 차체 하단에 설치됐으며 앞뒤 50:50 무게 배분을 통해 차량의 안정성을 높였다. 19인치 경량 휠은 뛰어난 감성을 발휘하며, 낮은 구름저항 타이어가 장착됐다. 상위 모델인 i3 비스(VIS)에는 20인치 경합금 휠이 장착된다.

i3는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5.5kg·m를 내고 후륜구동방식이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km까지 3.7초, 100km까지는 7.2초가 걸린다.

i3에는 싱글 페달 제어 기능이 적용돼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가속을 시작하면 전기모터가 동력을 공급한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전기모터가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제동 효과를 발휘한다. i3는 최고 132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에코 프로(Eco Pro) 모드와 에코 프로 플러스(Eco Pro+) 모드로 설정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BMW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행가능거리는 250km 수준인데 실제 테스트 결과 일 평균 45km 정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i3의 주행가능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내 소재는 천연 가죽과 원목, 양모, 재생 가능한 소재가 적절히 어우러졌다. 또한, 앞좌석은 트랜스미션 터널 부분을 제거해 운전자가 양쪽으로 다 하차할 수 있다.

주행정보는 5.5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며, 기어는 스티어링 오른쪽에 있는 레버로 조작한다. 5:5 분할 접이식 뒷좌석은 다양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고 전기모터가 차체 뒤편에 있기 때문에 기존 엔진룸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BMW 코리아는 BMW i3 출시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주행 거리 10만km 혹은 5년 동안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터리는 주행 거리 10만km 혹은 8년 동안 배터리 수명 70%를 보증한다.

김효준 대표는 "i3는 단순한 신 모델이 아니라 미래의 이정표"라면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illegible]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화 태양광, 적자터널 벗어날까

1분기 흑자전환… 한화큐셀·한화솔라원 실적 견인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극심한 불황에도, 막대한 투자를 한 태양광 분야에서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24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04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태양광 사업이 올해 1분기 흑자전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1년 2분기부터 적자가 시작된 이후, 12분기만에 흑자로 들어서는 것이다.

한화큐셀은 영국·프랑스·덴마크 등의 유럽 신흥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 1?일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의 은퇴자 아파트에 덴마크에서 최대인 345k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아파트에서 소요되는 전기의 56%에 해당하는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한화큐셀이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 은퇴자 아파트에 설치한 덴마크 최대 규모인 345kW 지붕형(Roof-Top) 태양광 발전소. /한화 제공

북·중미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9일 한화큐셀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환경오염지역인 데이우드에 10.8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증권가에서는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부문이 내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llegible]기자

KT 가입자 늘리기 총력

27일 영업재개 … 스펀지 플랜·전무후무 멤버십 등 도입

KT가 영업재개를 앞두고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 보조금 문제로 지난달 13일부터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간 KT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재개한다. 이는 45일간의 영업정지 일정을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마친 것이다.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 영업 기간 동안 가입자 이탈이 지속돼 온 KT는 다음달 18일까지 계속되는 단독 영업 기간에 새 마케팅 프로그램을 활용, 시장점유율 30% 탈환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를 위해 27일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구입 시 누적 기본료(약정할인 후 금액)에 따라 약정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줄여주는 '스펀지' 플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펀지 플랜은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적 기본료가 70만원 이상이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휴대전화 교체 프로그램이다. 다만 기존 고객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KT는 멤버십 포인트 차감없이 다양한 할인과 최대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전무후무 멤버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레 멤버십 VIP(슈퍼스타)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TOP7 제휴사인 ▲CGV ▲스타벅스 ▲아웃백 ▲미스터피자 ▲GS25 ▲뚜레쥬르 ▲롯데월드에서 멤버십 포인트 차감없이 1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전무한 79'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올레멤버십 VIP(슈퍼스타) 등급이 즉시 부여돼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KT는 영상·음악 등 핵심 콘텐츠와 데이터를 통합해 파격 할인을 제공하는 '알짜팩'을 다음달 1일 출시한다. 알짜팩에 가입하면 지니팩(음악), 올레tv 모바일팩(영상) 등의 부가서비스, 캐치콜, '밀투유' 영화할인권 2매 등을 51% 할인된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KT는 27일 영업재개를 앞두고 스펀지 플랜, 전무후무 멤버십, 알짜팩 서비스 등을 24일 발표하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 /KT 제공

금융사 제휴를 통한 최대 규모 통신비 지원 혜택도 선보인다. KDB대우증권의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KT 휴대전화 신규가입, 번호이동, 우수 기변 고객이 개통일 포함 31일 이내에 KDB대우증권 CMA 및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CMA로 통신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24개월 간 월 5000원에서 최대 월 7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과 제약 사항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KT만의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펫토그래퍼를 아시나요"

스마트폰·디카로 반려동물 일상 담아

안병찬 펫토그래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17.9%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하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소통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펫토그래퍼(Pettographer)'가 관심을 받고 있다. 펫토그래퍼로 활동중인 안병찬 씨를 만나 그의 스토리를 들어봤다.

-'펫토그래퍼'는 무엇인가.

"오랫동안 사람을 주제로 한 작품은 많았지만, 우리 곁에서 '동반자'라는 칭호를 듣으며 함께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작품을 남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닌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 의미있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또 대중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반려동물의 일상을 기록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활동계기는

"유년기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했다. 2년 전 미국과 영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자전거를 주스러리 한적한 공원을 가곤 했다. 사람과 공존하는 반려동물의 생활이 인상적이었다. 이때 모티브를 얻어 작은 작품전을 열었고, 호응을 받았다. 해외와 SNS를 통해 활동하다 최근 스튜디오(이태원 갤러리단길)를 오픈하고, 국내활동을 시작했다.

저의 접근 방식은 매우 흥미롭고 심플하다. 스마트폰과 디카를 꺼내 내주변의 반려동물을 찍어보면 평소 알지 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향후 활동 계획은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펫토그래퍼는 생소하다. 한류스타와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쯤에는 작품을 컬렉션해 전시회를 열고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활동할 계획이다. 내 일은 발명이라기보다는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정리=김기찬 kasa11@

세월호 참사 2중 근신하는 게임업계

주요 출시 행사 취소·무기한 연기 눈치 피하려 직업 속이는 경우도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더욱 몸을 낮추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나 사고가 있을 때도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게임업계 종사자는 직업을 감춰야 할 정도로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업계가 마련했던 출시 행사와 같은 주요 이벤트는 거의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 됐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예정된 일정을 조용하게 치르는 다 산업과 대조된다.

지난 21일 예정됐던 캠프모바일의 '밴드게임' 플랫폼 오픈은 무기한 연기됐다. 밴드게임은 카카오톡 게임 플랫폼의 아성을 위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임 산업 전체의 관심사였다.

우선 중소개발사가 만든 게임을 위주로 한 10종이 단계될 예정이다.

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캠프모바일은 대신 자체 홈페이지에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엔씨소프트가 스타 프로게이머 임요환과 홍진호를 섭외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e스포츠대회도 잠정 연기됐다.

무협 MMORPG '블레이드앤소울'을 e스포츠화한 '비무제 임진록'은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다. 엔씨 역시 해당 게임을 새로운 e스포츠 종목으로 키우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넥슨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넥슨 프로야구마스터 2014' 미디어데이를 열고 게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7일 오후 이를 취소했다.

야구 게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면서 넥슨이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 상품성을 높였지만 이를 알릴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엔씨 블레이드앤소울 e스포츠 비무제를 알리는 포스터. 비무제 행사에는 임요환, 홍진호 등 스타 게이머들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어느 산업군 하나 예외없이 슬픔을 나누고 있지만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숨쉬는 소리조차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체들이 몰려있는 판교의 경우 인근 술집은 곰을 치는 날이 많다. 스스로 자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게임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리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심지어는 직업을 일부러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월드컵 열기 미리 맛본다

'위닝일레븐 2014' 사전공개 테스트

50일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월드컵의 열기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NHN블랙픽은 온라인 축구 게임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의 최종 평가전에 해당하는 사전 공개테스트(프리-OBT)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에 참여하는 게이머들은 선수 뽑기와 육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리얼팀을 기반으로 플레이시작부터 100% 능력치의 선수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브라질, 네덜란드, 영국 등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은 물론 200여개의 명문 클럽 중에서 원하는 팀을 골라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PVP(이용자간 대전)를 즐길 수 있는 1대1 랭크경기와 PVE(이용자와 컴퓨터 간 대전)가 가능한 연습경기, 골킨지주어 든 게임 모드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능력이 비슷한 대전 상대를 찾아주는 '자동매칭 시스템'을 모두 적용해 게임의 재미를 높였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18일까지 20레벨을 달성하는 선착순 5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준다. 또 다음달 21일까지 약 한 달간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에 접속만 해도 더욱 박진감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일본 본토 폭격하라"

비행슈팅 'HIS' 국가점령전 참가자 모집

한국 게이머의 자존심을 걸고 일본 본토를 점령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3D비행슈팅액션 'HIS(히어로즈 인 더 스카이)'를 서비스 중인 게임아스는 2014 HIS 한일 국가점령전에 참가할 파일럿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3~4일 진행될 예정인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 HIS유저들이 이벤트 서버에 접속해 상대국가의 유저들과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다. 양 진영 간의 지역을 공중전을 통해 하나씩 점령해 많은 지역을 차지한 국가가 승리하게 된다.

HIS 유저라면 공식홈페이지 (www.playhis.com)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HIS'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비행슈팅 온라인게임으로 손쉬운 플레이방식과 실감나는 그래픽 유틸이 압권이다.

/이국명기자

넷마블과 한국게임과학고는 24일 산학협약을 맺었다. 정광호(왼쪽) 게임과학고 교장과 한지훈 넷마블 본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넷마블 제공

게임인 양성 우리가 맡는다

CJ넷마블, 한국게임과학고 학생 지원 협약

CJ E&M 넷마블이 미래 게임인 양성에 힘을 보탠다. 넷마블은 24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와 산학 협력을 체결했다.

한국게임과학고는 게임관련 6개 전공(게임기획,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게임음악, 아케이드게임, 이스포츠)의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의 게임 특성화 고교다.

전북 완주에 위치한 한국게임과학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200만원의 장학금 전달식과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넷마블 관계자와 게임과학고 정광호 교장 및 300여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넷마블은 게임과학고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지원해 업무능력 습득과 함양을 유도할 계획이다.

게임과학고 정 교장은 "국내 게임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대표 게임기업 넷마블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넷마블과의 협력에 힘입어 국내 게임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넷마블 한지훈 본부장은 "콘텐츠 산업, 그 중에서도 게임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게임과학고는 넷마블의 모바일 횡스크롤 RPG '샤이닝 스토리'에서 최근 개최한 전국 학교대항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보상으로 300여개의 멤버카를 받는 기쁨도 누렸다.

/박성훈기자

목·어깨 통증, 두통, 만성 요통… 디스크 질환 적신호!

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등 체형 불균형… 초기에 잡지 않으면 심각한 디스크로 진행

오랜 직장생활로 늘 목이 뻐근하고 양쪽 어깨가 무거운 느낌을 받은 30대 회사원 A양은 최근 두통과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손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 가까운 한의원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어 유명 연예인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됐다는 기사를 보고 강남조이스병원 교대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도연 강남조이스병원 교대점 원장은 일자목이 오래돼 양면 비대칭과 거북목으로 변형됐다고 설명하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디스크 중기로 A양의 상태를 진단했다.

이에 A양은 약물요법이나 시술적인 요법이 아닌 틀어지거나 들어져 있는 골격 구조를 직접 손으로 바로 잡는 도수치료와 뼈와 근육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인 맞춤형 운동요법으로 주 2회씩 3개월을 치료받았다. 치료 후 A양의 두통과 불면증 통증은 깔끔하게 사라졌다.

또 늘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요통과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개운치 않은 느낌으로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근처 정형외과와 교정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돼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 강남조이스병원 교대점을 방문했다.

김 원장의 진단 후 B씨는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중기로 진행된 상태였으며 요추 MRI 상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밝혀졌다. 진단 이후 김 원장은 간단하게 요추 신경 치료 주사로 B씨를 치료했으며 B씨는 척추 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요추 도수 감압 운동 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현재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환자 맞춤형 치료 진행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져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기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일시적인 증상의 호전만 주는 고주파 신경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주사 요법 침치료 등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실시한다. 진단 후 조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한 환자들은 이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받은 후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는다.

김도연(왼쪽) 강남조이스병원 교대점 원장과 가수 휘성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여러 유명 배우들이 다녀간 강남조이스병원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은 이 병원이 내놓은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은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차원이 다른 시술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체계화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및 교대역 인근에도 분원들이 있다.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이대목동병원, 특수·암 검진 본격 실시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 국가검진센터실 개소

24일 특수건강진단실 및 국가건강검진실 개소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24일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개소식을 갖고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및 국가 암 검진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검진 실시는 병원이 정부로부터 특수 건강진단 기관 및 국가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병원은 앞으로 통합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검진을 받는 환자를 위한 건강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 건강증진센터장은 "이번 검진 실시로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병원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기침·쉰 목소리 지속땐 '인후두염' 의심

감기·천식과 증상 비슷 — 폭음·폭식이 원인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건강에 적신호를 느낄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역류성 질환인데 그중 역류성 인후두염은 감기나 천식과 증상이 비슷해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습관 개선해야 완치 가능

인후두는 공기가 드나들고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다. 역류성 인후두염은 위산이 역류하면서 인후두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생기는 질환으로 폭식이 잦고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중년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또 짜고 자극적인 음식, 폭식,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목에 무엇인가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평소보다 가래가 많아지며 목이 쉽게 잠기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심할 경우에는 목이 칼칼하고 뜨거운 듯한 느낌과 쉰 목소리가 장기간 이어지기도 한다.

역류성 인후두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후두 내시경 검사를 통해 후두 부위를 관찰하고 식도와 인후두 부위로 위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산도 측정 검사를 해야 한다. 이후 장 운동 개선제나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약물치료를 통해 치료하고 만약 상태의 호전이 없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김형태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원장은 "역류성 인후두염은 약물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과음이나 폭음은 자율 신경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역류성 질환의 발병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 대거 적발

1분기 687곳 적발, 4481명 검거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법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분기(1~3월) 불량식품과 관련된 단속을 벌인 결과 6871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표시 기준 위반이 1856개소(27.0%)로 가장 많았다.

추진단은 이 중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 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22명을 구속했다.

/황재용기자

나른한 봄날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봄철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소 섭취 중요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봄에는 우리 몸의 활동 시간도 늘어나 활기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신진대사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피곤함을 느끼기가 쉽다. 이럴 때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에 봄철 내 몸을 채우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한다.

먼저 고려은단의 '비타민C 골드 프리미엄'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와 비타민D를 함유한 제품이다. 여기에 지방·탄수화물·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오틴도 풍부해 봄철 건강을 챙기기에 제격이다. 또 고려은단은 영국산 고급 비타민C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엠에스바이오텍이 생산하고 있는 '흑위지세븐'은 의성 흑마늘 분말을 이용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 좋은 제품이다. 기존 마늘보다 몸에 좋은 성분이 많으며 특히 홍삼 농축분말, 산수유 분말 등 7가지의 분말이 다량 들어있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영양·재미·간편·손쉬움>

'플대디' 위한 'NICE'한 식음료 봇물

야외 활동에도 먹이기 쉽고 휴대·보관 간편해 인기

최근 KBS '아빠' 등의 육아를 주제로 한 방송의 인기를 얻으면서 대한민국 아빠들이 분주해졌다. '해피투게더-슈퍼맨이 돌아왔다' MBC '일밤-아빠 어디가' 등이 그 프로그램이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육아에 적극 나서는 아빠를 뜻하는 '플대디(Play+Daddy)'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육아에 관심이 높은 아빠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음료 업체에서는 육아에 서툰 초보자들을 겨냥한 친절한(NICE) 식음료 제품들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빠 혼자서도 손쉽게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친절한(NICE) 식음료는 영양(Nutrition)·재미(Interest)·간편(Convenience)·손쉬움(Easy)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절대'[illegible]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따뜻해진 날씨에 아이와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초보아빠들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유식을 먹는 아기들을 데리고 가는 장기간의 외출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초보 아빠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먹이기 쉽고,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면서 영양도 만점인 제품들이 출시됐다.

정식품이 지난 3월 출시한 '유아식 베지밀 인펀트 우리콩'과 '베지밀 토들러 우리콩'은 상온보관이 가능한 ㅋ 모양의 완제품으로 외출 시 바로 수유할 수 있어 초보 아빠에게 안성맞춤 제품이다.

미즈맘도 우리 애들 밥상 3분 간편탕 한끼'는 뜨거운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리면 이유식이 완성되는 제품으로 아빠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특히 아이의 치아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른 농도로 무르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 3·5·7분의 시간에 따라 더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일 수 있다.

초보 아빠들에게 입이 짧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은 늘 고민거리다. 이럴 때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영양 간식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틸무원다논의 '아이러브요거트 쪽쪽'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요거트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아빠들이 일일이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먹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먼저 흥미를 느끼게끔 했다. 빨대로 빨아 마실 수 있는 컵 디자인을 채택했고 패키지 디자인에 귀여운 뽀로로 캐릭터로 재미를 더했다.

/정식품 제공

한국야쿠르트는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과 치아 건강까지 생각한 7가지 700억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유 '세븐키즈(7even Kids)'를 출시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먹을 수 있도록 패키지 디자인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저렴한 소포장 친환경 과일세트 현대백화점그룹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전점에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와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소포장 친환경 과일세트(5,000원)를 처음 선보였다. 이 세트는 사과·방울토마토·참외·바나나 등 제철 과일 8종목을 소포장해 판매한다.

/현대그린푸드 제공

4월, 20대 '정장' 구매 급증

졸업앨범 촬영·면접 등 단정한 스타일 선호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대표 김기호)는 4월 한달간 정장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월에 비해 20대 구매율에서 여성은 82%, 남성은 6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20대의 정장 구매율이 4월 들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앨범 촬영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과 첫 출근 복장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조사 결과 정장 구매 패턴에서도 변화가 보였다. 전월과 비교해 상·하의 세트 정장을 구매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고 그 이유로 정장을 처음 구매하는 20대 초·중반 연령층은 정장 코디에 익숙하지 않아 세트 구성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세트 정장은 튀지 않으면서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 앨범 촬영과 입사 면접에 유용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반면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장 스타일은 스커트가 압도적이다.

/김학철기자

환절기 남성, '리넨재킷·니트'로

바지·신발로 색다른 분위기 연출 멋내기

요즘같은 날씨에는 딱딱한 정장 차림을 고수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리넨 재킷과 경쾌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니트를 매치해 격식은 차리면서 스타일을 강조한 비즈니스룩을 추천한다.

스트라이프 컬러 니트는 셔츠와 함께 입으면 댄디한 느낌을 살려 캐주얼 비즈니스룩을 연출할 수 있고 체크 패턴이 들어간 니트는 활동적인 느낌을 낼 수 있어 봄철 차림으로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와 함께 네이비나 블랙 색상의 팬츠를 매치하면 점잖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지만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파스텔톤의 팬츠를 매치하는 것이 좋다. 슈즈는 옥스퍼드화나 로퍼를 신어 댄디한 멋을 강조하거나 동가죽 구두와 벨트로 포멀한 분위기를 낼 수도 있다.

소재에서 나오는 가벼운 느낌과 자연스러운 핏이 매력적인 리넨 재킷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 스타일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니트와 잘 어울린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아이템이다.

아울러 심플한 화이트 계열 셔츠에 니트 소재 타이를 이너로 매치하면 재킷의 V존이 강조되고 슬림 면 팬츠와 보트 슈즈를 더해주면 편안하고 감각적인 비즈니스맨의 이미지를 뽐낼 수 있다.

/반하트 디 알바자 제공

장두영 반하트 디 알바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환절기에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며 "특히 내추럴하면서도 세련된 리넨 재킷이나 경쾌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니트는 별다른 꾸밈없이도 포멀하고 스타일리시한 비즈니스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illegible]

월요일 통일 관련 강의 진행

이교부 통일론'으로 반향을 일으킨 이교부가 도서를 발간하고 매주 월요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통일 관련 강의를 한다.

이교부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 통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안보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교부는 이달 초 일간지에 "통일을 원하십니까?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문의 063)841-[illegible]25 http://cafe.daum.net/leegyobu

/홍지승기자

자뎅, 까페리얼 캔커피 출시

아메리카노 더블샷 등 2종

커피전문기업 자뎅은 까페리얼 브랜드에서 캔커피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자뎅 측은 슈퍼마켓, 마트의 온·냉장고 등에 보관 ... 매기 편리하고 휴대가 용이한 '까페리얼 아메리카노 더블샷'과 '까페리얼 에스프레소 라떼' 등 2종을 캔커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 남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이 제품들은 로스팅한 원두 추출액을 기본으로 원두의 깊은 맛과 향을 살리고 원유의 부드러운 맛을 조화롭게 표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업계 측은 전했다.

자뎅 관계자는 "까페리얼 제품들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만을 철저히 엄선해 캔커피로 구성했으며 여름에만 즐길 수 있었던 제품들을 이제는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든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뎅은 30년 전통의 커피 전문 기업으로 까페리얼 브랜드뿐만 아니라 로스팅과 블렌딩으로 원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원두커피 브랜드 '클래스'가 유명하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처음 출시해 테이크아웃 커피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카페모리'와 드립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커피와 칼로리 부담 없이 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워터커피 등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metroseoul.co.kr

스무디킹 '고양 꽃박람회' 사이즈업 쿠폰 무료증정

스무디킹(대표 김성완)이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여해 스무디킹 부스를 연다.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 유료구역에서 스무디는 물론 라엘주스, 리얼 요거트, 스무디킹 칩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행사 현장에서는 스무디사이즈업쿠폰 이벤트도 실시된다. 스무디킹 부스 앞에 마련된 QR코드를 통해 스무니앱을 설치한 후 또 다른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무디 사이즈업 무료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해당 쿠폰은 스무디킹 전국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일부매장 제외).

또 스무디킹은 젤리푸드와 오리지널 렌으로 구성된 '꽃 박람회 특별 세트메뉴'를 마련해 구매고객 대상으로 박람회 초대권 2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이 세트는 스무디킹 서울 근교 직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일부매장 제외).

한편 스무디킹 홈페이지에서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진행하는 '제1회 전국 블로거 대회' 및 꽃박람회 플래시 게임 프로모션 내용도 함께 제공해 스무디킹 홈페이지를 찾는 유저들이 보다 쉽게 박람회 이벤트 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혜인기자

스칸컴렉션과 에스파티나, 픽스의 모모스케치(왼쪽부터).

새봄 집안 분위기 북유럽 스타일로

자연 담은 패턴의 원목·패브릭 등 소품 인기

몇 해 전부터 큰 인기를 끌어오던 북유럽 인테리어는 심플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올해도 그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북유럽 인테리어 트렌드 중 하나는 비용 부담이 있는 가구나 벽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 감성을 담은 작은 소품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연을 담은 북유럽 패턴에 원목, 패브릭 등의 소재를 사용한 소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액자는 이미지와 프레임에 따라 공간의 느낌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소품 중 하나다. 그중 자연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원목액자를 활용하면 북유럽 느낌을 낼 수 있다. 디지털 사진 인화 사이트 픽스는 최근 프리미엄 원목액자를 출시했다. 이 액자는 물푸레나무로 수작업 제작해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제격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또 면으로 제작된 패브릭 액자는 따뜻한 느낌의 북유럽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진다. 커튼, 쿠션 등 집안의 패브릭 제품들도 북유럽 스타일 패턴이 적용된 제품들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작은 소품 여러 개를 믹스매치하면 북유럽 인테리어의 포인트를 살릴 수 있다. 다양한 사이즈의 목각 장식품과 패브릭 소품을 여러 개 섞어 테이블이나 선반, 벽 등에 배치하기만 해도 북유럽 느낌을 준다. 벨트바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종이 펜딩 트로피를 판매하고 있다. 종이로 만든 펜딩 트로피는 무게가 가볍고 가격도 저렴한 반면 북유럽 느낌을 살리는 데 효과적인 소품이다. 총 12가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안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부엌에서도 찻잔과 컵부터 키친 클로스까지 다양한 그릇과 소품들을 통해 북유럽 느낌을 낼 수 있다. 스칸컬렉션의 '스웨디시 클로스'는 북유럽 패턴이나 이미지를 프린팅한 행주 제품으로 말렸을 때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에스파티나는 스웨덴 리빙 소품 브랜드의 그릇, 찻잔, 냄비받침, 오븐장갑 등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하얀 테이블에 이런 선명한 원색의 주방용품을 배치하면 북유럽 주방의 느낌을 준다. /정혜인기자 hjjung0404@metroseoul.co.kr

외식업계, 불황 속 '매스티지' 열풍

합리적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최근 국내 외식시장에서 올해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로 매스티지가 주목받고 있다. 매스티지는 대중과 명품을 조합한 신조어로 저렴한 가격에 명품과 같은 고급스러운 가치를 소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전 세대와 달리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 젊은 세대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해서 만족하고 쾌감을 느끼며 심리적인 보상을 얻는다.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해져 불황 속의 작은 사치 매스티지는 외식업계의 주요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다.

분식점 '스쿨푸드'는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분식 메뉴에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고급화 한 매스티지의 대표 주자다.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카페에 온 듯한 매장 이미지와 주문 즉시 조리되는 음식은 단순하고 저렴한 분식이 아닌 고급 식사를 즐기는 만족감을 얻게 해준다.

치킨업체 'BHC'는 새로운 메뉴를 통해 흔한 치킨이 아닌 특별한 치킨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별에서 온 코스 치킨(별코치·사진)'이라는 이름의 이번 메뉴는 샐러드와 치킨, 치즈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코스 요리다.

또 '콩 바셋'은 매일 유업이 경영을 하며 콩바셋의 기술과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 받은 실력있는 전문 바리스타들에 의해 재현된 커피를 선보인다. /정혜인기자

실속 있는 '천자만별' 웨딩 프로모션

예비 부부 대상 할인 행사·웨딩카 제공 등 유혹

최근 웨딩업계 외에도 결혼 혼수 관련 브랜드들이 상반기 웨딩족들을 사로잡기 위한 '천자만별' 웨딩 프로모션들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신원은 남성복 브랜드 '반하트 디 알바자'에서 오는 30일까지 청첩장 소지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반하트 디 알바자의 백화점 전 매장에서 진행한다.

아우디 공식딜러 위본모터스는 6월말까지 아우디 웨딩카를 지원하는 웨딩 프로모션 '럭셔리 러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 경기점과 롯데백화점 판촌점, AK플라자 분당점의 구찌 타임피스 앤 주얼리 매장에서 커플 아이템을 3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24명에게 특별 장식 된 아우디 A6를 웨딩카로 제공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남부 지역의 예식장으로 제한된다.

까사미아는 웨딩 시즌을 맞아 가죽 소파 '레미'를 출시했다. 레미는 북유럽 스타일 3인 소파로 고급 천연 소가죽과 우수한 내구재를 사용한 제품이다.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100일의 행복' 웨딩 프로모션을 통해 신제품인 레미 소파를 3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정혜인기자

이곳이 '장난감 왕국' 이마트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6일까지 캐릭터 완구 1600여종을 한 데 모아 '완구 특별전'을 연다. 행사에선 기존 완구 매장을 대폭 확대하고 캐릭터 완구를 비롯해 봉제인형, 직수입 완구, TV캐릭터 완구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이사벨 | 홍경민 | 이용 | 서칼란 | 유진박 | 아시안 클래식컬 플레이어스 오케스트라

뉴시스 공감콘서트 / **네 번째**

2014년 5월 7일(수)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NEWSis

주관

협찬 KB금융그룹 신한은행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삼성생명 SAMSUNG KT&G

새로 나온 책

경제 경영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리즈 와이즈먼 외/한국경제신문

전작 '멀티플라이어'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리더십 모델을 제시한다. 멀티플라이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역량을 키워 유능한 인재로 만들어나가는지에 대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환경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박종무/리수

수의사인 저자는 생태계의 속성을 '약육강식'이 아닌 '공존'으로 정의하며 이 이야기를 딸에게 이야기하듯 쉽게 설명한다. 환경 파괴와 에너지 고갈, 멸종이 아닌 생명과 공존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 목 그대로의 진리를 인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철학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프레데리크 그로/책세상

프랑스의 철학자인 저자가 걷기라는 행위에 대해 펼치는 담담한 예찬론이다. 니체, 루소, 스트 등이 걸으며 이루어낸 철학적 사유에서부터 산책, 일주 등 다양한 걷는 행위가 줄 수 있는 감정들까지 잔잔하게 글로 옮겨내 요즈음처럼 볕 좋은 날 이 책과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

조선직업실록

정명섭/북로드

신문 발행인, 기인, 변호사 '외지부', 상가에서 대신 울어주는 '곡비' 등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선시대의 특이한 직업들을 통해 조선을 파헤친다. 각 직업을 소개할 때마다 읽기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시작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취미

카페에서 배우는 가정집 인테리어

이수희/그리고책

리빙 잡지 '위드 에비뉴'의 편집장인 저자가 카페에서 찾은 인테리어 노하우들 일반 가정집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북유럽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등 여러 스타일의 인테리어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

미혼모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관습과 편견에 '두 번 상처'받는 이들을 위해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아직 벗지 못한 우리나라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 출간됐다. '필로미나 리'라는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서술한 '필로미나의 기적'이 그것이다. 책은 1950년대 아일랜드에서 사생아를 낳았던 수많은 어린 엄마니들이 겪었던 슬픈 상황을 담아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필로미나의 기적

마틴 식스미스/미르북컴퍼니

1952년 아일랜드의 십대 소녀 필로미나는 미혼모가 된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미혼모들을 죄인 취급했다. 필로미나도 강제로 입소하게 된 수녀원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빌미로 고된 노역에 시달린다.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은 하루에 단 1시간. 아이는 네 살이 되던 해 어느 부잣집으로 입양되지만 수녀원에서는 생모에게 입양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 허무하게 아이를 잃어버린 필로미나는 죄책감에 시달려 살다가 2004년 전 BBC 기자 마틴 식스미스와 함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여정을 시작한다.

책은 필로미나의 아들 앤터니의 삶을 추적한다. 입양 후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동성애자로서 미국의 보수적인 70~80년대를 살아가는 또는 살아남는 과정을 전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교회가 신의 이름으로 강제로 행한 일들이 어떻게 필로미나와 마이클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입양이 어린 아들에게는 행복과 온전한 삶을 제공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관습과 사회적 편견이 수많은 미혼모들과 입양아들을 죄인처럼 대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해외 입양 국가 6위다. 1958년 시작된 해외 입양은 지금까지 16만5000여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 이 입양 아동 10명 중 9명이 미혼모의 아이라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이 땅의 모든 필로미나, 모든 마이클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

/김혜선 기자 kunsel404@metroseoul.co.kr

세상 끝에 서다

세상에 이미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태양과 별이 지금도 빛나고 있어서, 죽은 물어지는 새도 다른지 모른다. 한 세상이 끝나면 다른 세상이 열리지만 벌써 이 세상이 지나버렸다는 것을 어쩌는 일이야 한다. -'LONDON-기억'(류동선·책읽는수요일)~

/황재용기자 hsoul38@

희망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마음 치유

화제의 책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

박상곤/청림출판

슬픔과 분노, 허탈감에 사회가 멍들고 있다. 각종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고 거리의 사람들은 웃음을 잃었다. 요즘 대화는 "몇 명이 죽었대더라", "이 사회는 안된다"는 무거운 얘기들이 주를 이룬다. 대화의 공백은 한숨이 이은다. 5월을 맞는 곰의 계절이 무색도록 고요하다.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닫고 헤어서야 할 때이다.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는 어 세상에 없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심리상담가인 저자가 문학에서 찾아낸 장면과 글로 사람들을 치유한 경험을 담았다. 책 속에는 34명의 내담자가 등장하고 각자의 상처를 보듬는 34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사랑하던 여자와 헤어지고 사업에 몰두해 30대 조반 성공한 사업가가 된 한 내담자는 가끔 공황발작을 일으켰다. 저자는 그에게 미하엘 엔데의 '모모'를 권했다. 자신의 일기처럼 느껴진다는 내담자, 상처로 멈춰진 시간을 되찾게 됐다.

살다보면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다. 상처를 추스르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때론 그 상처 안에서 오래 머물기도 한다. 저자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상처를 이길만한 희망의 이야기를 찾지 못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그 어떤 심리 요법보다 '울림 있는 이야기'가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으며 상처를 연도할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우울한 마음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마음의 절망과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학습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건강했던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 일이다. 천천히 울림의 이야기를 들으며 회복의 시간을 기꺼이 해 봐야다.

/김학철기자

직장인, "바빠서 영어 공부 안 해"

입사 6개월이내 소홀해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입사 이후 바빠져 영어 공부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YBM시사닷컴(대표 오재환)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대부터 40대까지 직장인 683명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410명)가 '입사 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응답자 중 74%(303명)는 입사 6개월 안으로 영어 공부를 소홀히 했다.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바쁜 직장 생활과 영어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 환경이 지목됐다.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은 이유로 '일상 업무로 바쁘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46%(188명)를 차지해 1위로 꼽혔다.

'평소 회사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다'가 32%(131명)로 뒤를 이었다. '취업에 성공해서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답변도 16%(65명)를 차지했다.

직장인 영어 학습 현황 설문 조사

반면 직장인 대다수가 지속적인 영어 학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영어 공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대상자 683명 중 72%(490명)가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직장인 중에서는 '영어회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43%(210명)로 가장 많아 영어 말하기·듣기 능력에 대한 큰 갈증을 나타냈다.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가 32%(157명), '이직을 위한 토익 점수' 23%(113명) 순이었다.

/김혜선기자

이상민 김지윤 박준우 레이디제인

"케이블 스타는 우리가 접수한다"

이상민·홍석천·레이디제인 섭외 쇄도 전문가들도 가세 비지상파 방송 맹위

케이블 채널을 이끌어 가는 스타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들은 토크쇼·메이크 디규·서바이벌 오디션·요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무기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논란을 일으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문제아, 방송인들부터 업계 전문가까지 이들은 케이블 채널의 '대세'로 자리 잡으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지상파 아니면 어때

가수 이상민은 지난 2010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수십억대 대출 알선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다시는 TV에서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2년 엠넷 '음악의 신'을 시작으로 다수의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후 이상민은 XTM '더 벙커'와 tvN '더 지니어스1:게임의 법칙' 에서 노련한 방송 감각을 선보이며 비호감 이미지에서 벗어났다. 기세를 몰아 '더 지니어스 2: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우승까지 차지한 이상민은 '더 벙커 3', 엠넷 '음담패설', KBS W '어타는 수다쟁' 등에서 맹활약 중이다. 또 올리브TV의 리얼리티 '셰어하우스'에도 출연하며 케이블을 평정하고 있다.

이상민이 케이블의 제왕으로 군림했다면 여왕의 자리엔 가수 레이디제인이 있다.

레이디제인이 지난해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의 '여가수의 은밀한 매력' 특집에 출연했을 당시만 해도 그의 이름 앞에는 래퍼 사이먼 도미닉(쌈디)의 전 여자친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그는 이날 방송에서 솔직한 매력과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후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 E채널 '용감한 기자들'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맹활약 중이다.

하지만 레이디제인이 지난해 발표한 미니앨범 '얼기', '댄디걸' 등이 대중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지 못해 본업인 가수보다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단 점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석천 역시 '셰프의 야식'(올리브TV), '마녀사냥'(JTBC), '용감한 기자들' 등 주로 비지상파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타다.

핑크 토크 열풍을 몰고 온 '마녀사냥'에 출연 중인 홍석천은 남심(男心)·여심(女心)의 예 '케이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홍석천은 '마녀사냥'에서 '19금 토크'의 1인자 신동엽과 '절친 적 토크' 성시경의 콧대를 누를 정도의 입담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 연예인보다 더 잘 나가

비방송인 전문가들을 주로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건 옛날이야기다. 특히 케이블 채널에선 요리·현대미술·패션·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MC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문가로서의 면모도 발휘하는 동시에 연예인 못지않은 입담으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올리브TV '노 오븐 디저트'는 연예인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만화가 김풍과 쇼콜라티에 루이 강은 '노 오븐 디저트'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 메뉴를 선보이며 소소한 재미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 '노 오븐 디저트' 시즌 2에선 하차한 루이 강 대신에 파티셰 이진환이 김풍과 함께 다양한 디저트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박준우 역시 요리로 방송인의 삶을 시작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제국의 아이들'의 광희와 함께 올리브채널 '마트를 헤매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의 MC로 발탁돼 진행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현재 박준우는 재치 넘치는 말솜씨와 해박한 요리 지식으로 홍은희·공형진과 함께 '올리브쇼 2014'를 이끌고 있다.

어렵게 느끼는 현대 미술을 TV 속에 담아낸 스토리온 '아트스타 코리아'에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MC 정려원과 송경아가 채우지 못하는 전문적인 부분은 심사위원 유진상·홍경한·우정아, 멘토단 김선정·빈이정 등이 맡았다.

특히 경향아티클 편집장 홍경한과 미술평론가 반이정은 예술도 되고 말발도 되는 전문가들로서 현대 미술을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패션부문에선 이로리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한혜연이 온스타일 '슬드어웃'에 출연 중이며 김지윤 좋은연애연구소장은 '로맨스가 더 필요해'에서 연애 상담사로 활약 중이다.

/김유경기자 [email illegible]@metroseoul.co.kr

SBS '쓰리데이즈' 박유천

MBC '앙큼한 돌싱녀' 이민정

KBS2 '골든 크로스' 김강우

수목극 이유 있는 '외면'

파워 불균형 '쓰리…' 답답한 아빠 '골든…' 방해꾼 남매 '…돌싱녀'

수목드라마 경쟁이 심심하다. 지난 23일 지상파 3사 수목극 총 시청률은 25%(TNmS 전국가구 이하 동일 기준) 미만이었다.

업계에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결방 여파가 시청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9일 기준 3개 드라마 시청률은 총 27% 미만으로 나타났다. SBS '별에서 온 그대' 마지막 시청률이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 수목극은 최강자 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개연성 없는 전개가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SBS '쓰리데이즈' 13회(23일)는 10.5%로 수목극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주요 등장 인물의 힘이 균형을 잃어 재미를 떨어트린다.

이동휘(손현주) 대통령은 한없이 무능력하다. 대통령 곁을 지키는 경호관은 한태경(박유천)이 유일하며 이동휘는 늘 소수의 경호관만 대동한다. 힘의 중심은 재벌 김도진(최원영)에게 쏠려 있다. 극적 긴장감을 조성해야 하는 역할이지만 김도진의 계략은 늘 대통령 경호의 허술한 면을 파고 드는 비현실적인 설정으로 일관된다.

배우들은 흥미로운 극 전개에 반해 출연을 결정할 정도였다. 종영 2회를 남겨두고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마지막 희망이다.

KBS2 '골든 크로스'는 경제권력에 의해 희생된 가족을 위한 강도윤(김강우)의 복수를 다룬다. 그러나 답답한 아버지 때문에 복수가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평범한 은행원 강주완(이대연)은 권력의 협박을 못 이겨 딸 강하윤(서민지) 살해범을 자처했다. 그러니 횡설수설하거나 무조건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선 희생보다는 무능력이 비춰져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9일 첫 방송된 '골든 크로스' 3회분은 4.7%를 기록했다. 작품은 배우들의 호연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재의 저조한 반응을 역전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수목극 2위를 유지하고 있는 MBC '앙큼한 돌싱녀'(7.8% 23일)는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을 잃었다. 차정우(주상욱)·나애라(이민정)의 재결합 과정에 치중하다 보니 4각 관계가 시들해져 버린 것이다. 더불어 국여진(김규리)·국승현(서강준) 남매가 주인공 두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이 억지스러울 때가 많아 개연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장르적 한계도 인기 저하 요인이다. 로맨틱 코미디물은 추리·복수극 같은 특색 있는 드라마와의 경쟁에서 뻔한 내용이라는 편견에 가려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전효진기자 jeonh@metroseoul.co.kr

'소원' 아역 이레 여우조연상

베이징영화제 … 장쯔이는 여우 주연상

영화 '소원'에 출연한 아역배우 이레가 제4회 베이징국제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이레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영화제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날 시상식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준익 감독이 연출하고 설경구·엄지원·김해숙 등이 출연한 '소원'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인 소원과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올해 여덟 살의 이레는 어린 나이에도 아픔을 딛고 꿋꿋이 살아가는 주인공 소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이번 영화제 시상식 여우주연상은 영화 '일대종사'의 장쯔이에게 돌아갔다. 장쯔이는 이번 수상으로 금마장영화제·홍콩영화금상장·아시아태평양영화제 등에 이어 10번째 여우주연상을 받는 진기록도 세웠다.

'일대종사'는 한국 여배우인 송혜교도 출연해 국내에서 화제가 된 작품으로 이날 감독상(왕자웨이)과 촬영상까지 수상해 3관왕에 올랐다.

영화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은 '시다스'가 받았다.

/박…기자

'소원'의 이레

조디 포스터, 동성애인과 결혼

배우 알렉산드라 헤디슨과 예식

지난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커밍아웃한 배우 겸 감독 조디 포스터가 동성 애인과 최근 결혼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디 포스터는 사진작가이자 배우인 알렉산드라 헤디슨과 지난 주말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조디 포스터 측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포스터와 헤디슨은 지난해 여름부터 1년간 사랑을 키워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헤디슨은 레즈비언을 소재로 한 드라마 'L워드'에 출연했다. 올해 아카데미시상식을 진행한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 엘렌 드제너러스의 연인이기도 했다.

포스터는 여성 영화 제작자 시드니 버나드와 동거하며 두 아들을 키웠지만 2008년 결별했다. 올해 1월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공로상에 해당하는 세실 B 드밀 상을 수상한 직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아역으로 데뷔한 포스터는 '피고인'(1988)과 '양들의 침묵'(1991)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두 차례나 여우주연상을 받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여성 연기파 배우다. 감독으로도 데뷔해 '꼬마 천재 테이트'(1991) '홈 포 더 할리데이'(1995) '비버'(2011) 등을 연출했다.

/박…기자

'스파이더맨2' 어메이징한 흥행

비수기 불구 개봉 첫날 20만 동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침체된 극장가에서 개봉 첫 날 약 20만 관객을 모았다.

2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는 전날 19만966명을 모으며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학생들의 중간고사로 관객이 30%나 급감한 비수기에 많은 관객을 동원해 마블 히어로물의 인기를 입증했다. 2위인 한국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관객 수(1만2758명)와는 무려 18만 명 차이가 난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는 스파이더맨의 삶에 적응된 피터 파커(앤드류 가필드)가 치명적인 사고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된 일렉트로(제이미 폭스)와 해리 오스본(데인 드한)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렸다.

/박…기자

메뉴판닷컴 브랜드툰
남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by 상남자
헉! 걸그룹 신상화보! WOW~
맛집 검색해야..
BOY
여친도착 10분전.. 오늘은 또 뭐 먹으러 가지?
째깍~
째깍~
헉..어쩌지?
여친도착 1분전
1분안에 데이트 맛집찾는 어플 발견!
걸그룹 보다가 데이트 준비 못한 당신에게!
전국맛집 TOP1000
전국맛집 TOP1000
전국맛집 TOP1000을 다운 받으세요!

세월호 사고에 스타들 입단속!

기부·임신 소식 '쉬쉬'…연기 잘한다고 욕먹기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스타들이 극도로 말조심을 하고 있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져 국민들의 감정이 예민해지자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입까지 굳게 다물고 있다.

이병헌(왼쪽 사진)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 5' 촬영 차 떠난 미국행을 알리지 않았고, 한가인(오른쪽)·연정훈 부부는 결혼 9년 만의 임신 소식을 알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최근 김수현·송승헌·장미인애 등 스타들의 기부 소식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일부는 자칫 홍보 목적으로 오해받을까봐 차라리 알려지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박신혜의 소속사 측은 "조용하게 지나가길 원했는데 기부가 알려져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심지어 류승룡은 애꿎게 연기를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 30일 개봉할 '표적'의 주연배우인 그는 영화의 원작인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 제작자에게 연기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상황에 연기를 잘 하면 뭐하나"는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좋은 소식도 의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판국에 실제로 잘못하면 거의 연예계 퇴출 분위기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붐은 중국에서 팬미팅을 연다고 했다가 비난을 받았고, 모델 허재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욕조에서 잠수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자 군입대를 결정했다.

MBC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던 가수 길은 23일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비난을 받으며 프로그램에서 5년 만에 하차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효리 등 평소 SNS로 팬들과 소통을 즐겼던 스타들은 아예 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한 상태다. 올렸다고 해도 세월호 사고를 애도하는 글 정도다.

한 매니지먼트사 대표는 "지금은 스타들에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칫하면 욕을 먹는 때라 언행이 극도로 조심스럽다"면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탁진현기자 sunki427@metroseoul.co.kr

박신혜

김수현, 단원고에 3억 기부

톱스타 김수현(사진)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빠진 단원고에 3억원을 기부한다.

김수현 측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과 유가족,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단원고 생존자들과 선후배들의 상처를 치유할 방안을 고민하다 단원고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수현은 최근 중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120만 위안(약 2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탁순호기자 sunoo@

이수혁 '고교처세왕' 출연

완벽 비주얼 대기업 본부장

모델 출신 연기자 이수혁(사진)이 tvN 새 월화극 '고교처세왕'에 출연한다.

24일 소속사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는 "이수혁이 6월 방영 예정인 '고교처세왕'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교처세왕'은 철없는 고등학생 서인국의 대기업 간부 입성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고등학생이 어른들의 세계에 입성하면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모험들을 담은 작품이다. 이수혁은 극중 가족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냉소적인 면을 가지게 된 완벽한 비주얼의 경영전략 본부장 유진우 역을 맡았다.

2011년 '뿌리깊은 나무', 2013년 '상어' 등을 통해 가능성을 검증 받은 이수혁은 '고교처세왕'에서 트렌드를 이끄는 완벽한 스타일로 여심을 흔들 전망이다.

서인국과 이하나, 이수혁이 출연하는 '고교처세왕'은 오는 6월 방송 예정이다.

/정성호기자 jsw@

연예계도 노란 리본 물결

심은진·지드래곤·김재중 등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빌어

스타들도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심은진은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노란 리본 그림에 저작권 어쩌고 하는 걸 봤다"며 "그래서 제가 그렸다. 이 그림은 마음껏 가져다 쓰셔도 된다. 여러분 마음은 다 하나가 아닌가"라며 자신이 직접 그린 노란 리본 캠페인 사진을 올렸다. 그가 직접 그린 그림에는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다.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한국이름 안현수)도 이에 뜻을 같이했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Pray For South Korea(한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노란 리본이 그려진 사진을 올렸다.

같은 날 빅뱅의 지드래곤(왼쪽 사진), JYJ의 김재중,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오른쪽) 등도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이미지를 노란 리본 그림으로 바꿔 무사귀환의 뜻을 밝혔다.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은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노란색 리본이 그려진 사진을 SNS·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병사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뜻으로 노란색 천을 나무에 묶어놓고 기다린 데서 유래했다.

/김민지기자 anakim@

심은진이 직접 그린 노란 리본 캠페인 이미지 /심은진 트위터

이다해·왕지혜 자존심 대결

'호텔킹' 다른 매력 대립 흥미

MBC 주말극 '호텔킹'의 이다해와 왕지혜가 묘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흥미를 끌고 있다.

'호텔킹'에서 이다해는 극중 능숙한 클라이밍을 선보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구사와 화려한 패션으로 활달하고 거침없는 아모네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있다. 반면 왕지혜는 전직 아나운서 송재경답게 정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로 아모네와는 상반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다해의 클라이밍에 맞서 이번 주 방송분에서 왕지혜는 아찔한 요가 동작으로 송재경의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두 여배우가 의상부터 말투, 극중 역할의 취미까지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 사람 간의 대립구도가 분명해지면 두 캐릭터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훈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metro Brazil

브라질, 전 세계 살인 사건 11.4%

UN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살인 사건 연구' 결과 브라질이 전 세계 살인 사건의 1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세계 인구의 2.8%만을 차지하는 데 비하면 엄청난 수치이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살인 발생률을 기록한 대륙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다. UN의 마약범죄 부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세계적으로 43만7000명이 살해당했으며 그 중 5만6000명이 브라질에서 죽었다.

metro Colombia

entan motores para
rcha de las Putas'

내 몸은 내 맘대로… '슬럿워크'

다음 달 3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제 3회 '슬럿워크' 행사가 열린다. 슬럿워크는 성범죄의 원인은 여성 노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야한 옷을 입고 벌이는 거리시위다. 이 시위는 캐나다 토론토의 한 경찰관이 "여성이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헤픈 여자(슬럿)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여성 해방을 장려하는 시위로 자리매김했다.

metro Russia

Уши-гиганты
여러분, 들리세요? 시 읊는 '수퍼 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무제온 공원에 세 개의 거대 귀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이색 조형물은 모스크바 시립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 이용시간 연장, 다양한 강의 진행, 작가와의 만남과 토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스크바 시립 도서관 '독서의 밤' 행사를 기념해 설치한 것이다.

모스크바 도서센터의 큐레이터 마리아 체르트코바는 "귀 조형물은 덩치만 큰 단순 설치 예술품이 아니라 귀를 통해 시 낭송과 음악, 산문의 일부분을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예술 작품"이라며 "이를 위해 시인 안드레이 센셰니코프와 작곡가 키릴 쉬보코프가 특별히 작품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귀 조형물을 통해 나오는 음악과 강연 등의 내용은 심오하고 추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수퍼 귀를 본 대다수 시민들은 조형물의 모습은 물론 내용에도 귀 기울이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시민은 "귀 조형물을 통해 듣는 피아노 소리가 깊고 아름답다"며 감탄했고, 거대한 크기에 관심을 보이며 조형물에 다가간 아이들도 강의 내용에 집중했다.

체르트코바는 "소리가 작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 조형물은 음악 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피커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이라며 "움푹 패인 귓바퀴 쪽으로 다가가면 아쉽지만 소리가 훨씬 잘 들려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 조형물은 독서의 밤 행사가 끝나면 도서 페스티벌로 옮겨져 새로운 관람객을 맞는다.

체르트코바는 "새로운 시와 음악, 강연으로 프로그래밍할 것"이라며 "색다른 모습과 분위기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다리야 부키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브래지어 수집광' 20년간 5000개

올바른 착용법 알리며 유방암 예방 홍보… 여대생들에 기증 받기도

골동품, 우표수집에서 자동차수집까지 세상에는 다양한 수집가가 있다.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에 사는 천칭쭈(陳清祖·56)는 20년간 브래지어를 모아온 '브래지어 수집광'이다.

천칭쭈의 집 방 한 칸에는 각양각색의 브래지어가 벽에 걸려있다. 그가 20년간 모은 브래지어는 5000여 개. 전국 대학교 30여 곳의 여대생에게 기증받았다. 개혁개방 직후 유행했던 천으로만 제작된 형태에서 2000년 이후 등장한 와이어 형태까지 브래지어의 변천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는 브래지어는 여성 용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말한다.

80년대 하이커우시 보건전문대를 나왔던 그는 한 병원 외과 진료실에서 실습을 했다. 당시 부인과 진료를 받는 여성 중 유선에 문제가 있던 환자 일부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일부는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그는 잘못된 브래지어 착용을 유방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천칭쭈는 중국 곳곳을 돌며 브래지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멀리는 신장성, 티베트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익 캠페인을 벌였다. 현지 여대생들을 만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변형된 브래지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한' 요구에 그를 피하거나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여대생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유방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취지를 설명하자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름다움을 위해 너무 꽉 끼거나 작은 속옷을 착용하는 여성들이 많다. 예뻐 보일 지는 모르겠지만 가슴 건강에는 좋지 않다"며 유방암 예방을 강조했다.

천칭쭈의 꿈은 사회적으로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브래지어 전시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브래지어 1만 개를 모은 뒤에 설립, 무료로 개방할 생각이다.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그를 보는 시선이 많지만 그는 "주위의 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정정당당한 수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R 마드리드, 뮌헨에 승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따돌리고 우위를 점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19분 터진 카림 벤제마의 골에 힘입어 지난 대회 우승팀 뮌헨을 1-0으로 꺾었다.

최근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이날 선발 출장해 그라운드를 누볐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여러 차례 위협적인 돌파와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뮌헨 수비진에 위협을 가했다.

벤제마는 전반 19분 뮌헨의 공격을 막아내고 맞이한 역습 기회에서 파비오 코엔트랑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낮게 찔러준 크로스를 받아 가볍게 골대로 밀어 넣으며 이날 경기의 유일한 득점을 뽑아냈다.

원정팀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해 초반부터 박상 공세를 펼쳤지만 역습에서 골을 내준 것이 아쉬웠다.

10번째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회에 가까워진 레알 마드리드와 다급해진 디펜딩 챔피언 뮌헨은 오는 30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마지막으로 격돌, 결승 진출팀을 가린다. /장성훈기자

손흥민

구자철

해외파 코리안리거 주말 뜬다

손흥민 '도르트문트 킬러' 본능
이청용 팀 분위기 반전 이끄나
구자철·박주호 팀 상승세 활력

잉글랜드와 독일 프로축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파 코리안리거들이 주말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은 오는 27일 오전 1시 30분 '꿀벌군단' 도르트문트 사냥에 나선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의 홈구장 바이 아레나에서 열리는 도르트문트와의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32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다.

손흥민은 축구팬들 사이에서 '도르트문트 킬러'로 유명하다. 함부르크에서 뛰었던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와의 2차례 경기에서 무려 4골을 넣었으며, 올 시즌에는 레버쿠젠 소속으로 15라운드에서 천금 같은 결승골을 기록했다.

최근 손흥민이 한층 올라온 컨디션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손흥민이 정규리그 10호골과 시즌 두 번째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볼턴의 이청용(26·볼턴)은 8경기 만에 짜릿한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출격을 앞두고 있다. 이청용은 26일 오후 11시 세필드 웬즈데이 FC의 힐스보로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원정경기에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

또 구자철(25)과 박주호(27·이상 마인츠)도 이날 오후 10시30분 뉘른베르크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날 경기는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리그 7위 마인츠(승점47)는 최근 5경기 2승(3패)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6위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승점49)와 불과 승점 2점 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뉘른베르크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리그 5~6위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주어진다.

특히 뉘른베르크는 최근 두 경기 연속 4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력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구자철이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동료들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박지성과 지동원·홍정호, 김보경 등 해외파 선수들도 주말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성훈기자 ysw@metroseoul.co.kr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사진/AP연합]

프로야구 전적 24일

■ 문학

NC	200	021	050	10
SK	100	401	100	7

[illegible]

■ 목동

롯데	020	100	000	3
넥센	221	100	31X	10

[illegible]

■ 대전

두산	010	000	002	3
한화	020	003	40X	9

[illegible]

■ 대구

LG	002	002	100	0	[illegible]
삼성	100	401	400	1	[illegible]

[illegible]

윤석민 '부활 움직임'

4번째 등판서 5이닝 무자책점

메이저리그 입성을 노리는 윤석민(28·사진)이 미국 프로야구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에서 뛰고 있는 윤석민은 2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알렌타운 코카콜라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 산하 리하이밸리 아이언피그스와 경기에서 5이닝 8피안타 볼넷 2개에 2실점(비자책)을 기록했다.

승리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불펜 난조로 시즌 첫 승엔 실패했다. 윤석민의 평균자책점은 9.49에서 6.75로 낮아졌다.

그래도 경기를 거듭할 수록 안정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최근 3경기에서는 15이닝 4자책점, 평균자책점 2.40을 기록 중이다.

피안타 갯수가 말해주듯 완벽했던 피칭은 아니었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다. 1회말 테이블세터진에 연속 안타를 맞으며 무사 1, 2루 위기에 놓인 윤석민은 마이클 프랑코의 다소 평범한 타구를 좌익수 제말리 윅스가 놓치며 첫 실점 했다. 레이드 브리그낵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가 된 상황에선 잠 머피의 유격수 땅볼 때 1점을 더 내줬다. 모두 실책이 빌미가 된 점수였기에 윤석민의 자책점으로 기록되진 않았다.

1회를 넘긴 윤석민은 차츰 안정을 찾아갔다. 이후 실점은 없었다. 이날 윤석민은 87개의 공을 던졌고 스트라이크는 57개를 기록하며 호투했다.

윤석민은 4-2로 앞선 6회 크리스 존스에게 마운드를 넘겼지만 팀이 8회 2실점, 9회 1실점하며 4-5로 역전패해 승리를 기록하진 못했다. /장성훈기자 ysw@

피네다 또 부정투구 퇴장

보스턴, 두 번째 의혹 제기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이선발 투구 마이클 피네다(사진)가 부정투구 논란으로 결국 퇴장당했다.

피네다는 24일 미국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2회말 투구 중 퇴장 명령을 받았다. 존 패럴 보스턴 감독은 피네다가 목에 오른손을 대고 나서 투구하는 모습을 보고 "목에 송진을 바르고 손에 묻힌 후 공을 던진다"며 부정투구 의혹을 제기했다.

게리 데이비스 주심은 피네다의 목을 만져본 후 즉각 퇴장을 명령했다. 피네다는 지난 11일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이물질이 묻은 손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며 부정투구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패럴 감독은 항의할 시점을 놓쳤다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피네다가 1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순호기자 sune@